

# 광양 제조업체 52% “2분기 체감경기 더 악화”

### 광양상의, 100개사 BSI 조사...내수 침체·수출 위축에 코로나 악재 겹쳐 매출·영업이익 전분기보다 하락...경기전망지수도 2분기 연속 부정적

광양지역 제조기업들은 2분기에 체감경기가 여전히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양지역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 63.5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 분기(61.2)보다는 2.3포인트 상승했으나 2분기 연속 6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15.4%, 전 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2.7%였다.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51.9%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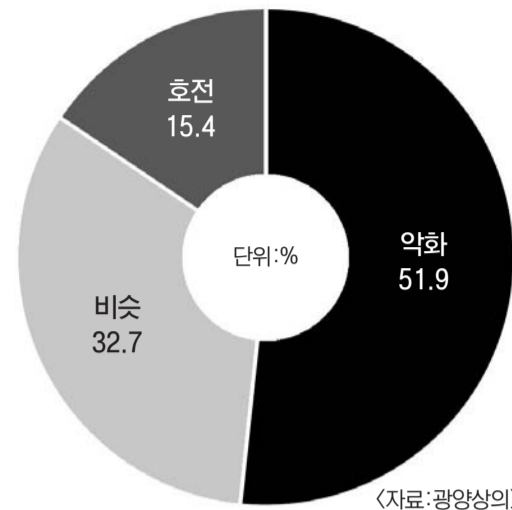
광양지역 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조달 지수도 전 분기보다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내수 침체와 수출 위축 등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심리마저 악화해 지역기업들이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36.5%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역물품 부족(46.7%, 복수응답),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23.3%), 수출 감소(16.7%), 물류·통관 문제(6.7%),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 어려움(3.3%)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광양 제조기업 2분기 경기전망



(자료:광양상의)

됐다. 그나마 1분기 매출 감소분이 5% 미만 76.5%, 10% 미만 23.5%를 차지해 다행스러운 결과다.

광양지역 기업 4곳 중 3곳은 코로나19 피해가

1998년 외환 위기 때와 비교해 '비슷'(48.1%)하거나 '더 크다'(25.0%)고 응답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비교하면 80.8%가 '더 크다'(30.8%)거나 '유사하다'(50.0%)고 답했다. 메르스·사스 등 이전 감염병과 비교하면 52.0%가 '더 크다', 36.5%는 '유사하다'고 응답해 심리적 영향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중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사회적 불신 만연', '구조개혁 등 중장기 파장'(각각 31.7%)을 꼽았다. 중국 포비아(15.9%), 밸류체인 다변화(14.6%), 경제 침체·출입국 제약 등(6.1%)을 우려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화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41.5%)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고, '조업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21.3%), '내수·관광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14.9%), '공정위·세무조사 등 조사 유예'(13.8%), '서비스·신산업 관련 규제 개혁'(8.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장흥 장평면 명품 귀족호두 마을 등 23곳에 녹지숲 조성

장흥군 장평면은 지역특화 산림소득 품목이자 대표목인 귀족호두나무를 지역 소공인, 마을회관 주변, 공터 등에 식재해 녹지숲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

녹지숲 조성을 위해 마을별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공공장소 23개소를 선정해 이달 중순부터 귀족호두나무 150주를 식재했다.

귀족호두나무는 마을 주민과 사회단체, 장평면 귀족호두작목반이 함께 가꿔나갈 예정이다. 생산물은 장평귀족호두축제에 출품하고 수익금은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

장평면에서는 42농가가 산림소득품목으로 귀족호두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손잡업 건강용으로 인기가 높다.

문병욱 장흥 장평면장은 "면 상징목인 귀족호두나무 식재로 녹지숲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귀족호두나무를 식재해 숲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전남 시·군 새마을회원 코로나 방역 활동 앞장

전남지역 새마을회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30일 전남도새마을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군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새마을직장동, 새마을문고 회원 750여명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사진)

이들은 지역 방역활동 참가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소외계층의 급식 배달 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대구시새마을회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제작해 보내왔다.

이귀남 전남도새마을회 회장은 "각 시군 새마을회 회원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면서 "전남도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코로나19를 꼭 이겨내자"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 추모제서 영·호남 화합 행사 '눈길' '코로나 극복' 기원 동백나무 7그루 장흥군, 대구 제2군사령부에 기증

장흥군 해동사에서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올해는 안 의사 순국 110주년으로 장흥군이 해동사에서 모셔온 66번째 추모제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쯤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안 의사는 이듬해 3월 26일 위순감옥에서 순국했다.

추모제는 안 의사가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장흥 유림 안홍천(죽산 안씨)씨의 문중과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1955년 해동사를 건립했다. 매년 추모제향을 지내고 있는 해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추모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영·호남을 잇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장흥군은 이날 대구 육군 제2군사령부에 동백나무 7그루를 보내는 '코로나 극복 기원 사랑의 나무' 기증식을 가졌다.

장흥군은 안 의사가 '응칠(應七)'이란 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2군사령부에 장성급 인사 7명이 근무하고 있어 '7'이라는 숫자로 이어진 인연에서 비롯돼 동백나무 7그루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역경을 딛고 해방의 봄을 맞았듯이, 코로나 위기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를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한 장흥군은 올해부터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해동사 인근에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 체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안중근의사 110주년 추모제가 지난 26일 장흥군 해동사에서 열렸다.

(장흥군 제공)

##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연중 지원...체외수정 최대 110만원까지

영암군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큰 돈이 드는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를 건강보험 적용 이외 비용을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위

한 출산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정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최대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비용도 지원된다.

영암군은 지난 201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영암지역에 주소를 둔 만 44세 이하 난임부인 대상으로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시 시술비 190만원 이내 1회 지원하고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